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을 감소시키는데에는 내과적 또는 외과적 치료 보다는 예방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뇌졸중의 주요 위험인자를 확인하여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차적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적응증에서 뇌경동맥 내피제거술이나 항응고제제가 효과있을 수 있

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 대책

뇌혈관질환(뇌졸중)은 크게 허혈성 뇌혈관질환과 출혈성 뇌혈관질환으로 나누어진다. 허혈성 뇌혈관질환은 뇌혈전증, 뇌색전증, 열공성 뇌경색, 일과성 허혈발작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출혈성 뇌혈관질환은 뇌실질내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나누어진다. 뇌졸중 진단이 되면 합리적인 치료를 위하여 주상동맥경화증, lipohyalinosis, 혈전색전증, 혈관염, 동맥류, 뇌혈관기형 등 근원적 뇌혈관질환의 정확한 종류가 규명되어야 한다.

다. 일과성 허혈발작과 뇌졸중 환자에서 아스피린과 ticlopidine 같은 항혈소판제제가 뇌졸중, 심근경색과 사망을 감소시킨다.

위험인자의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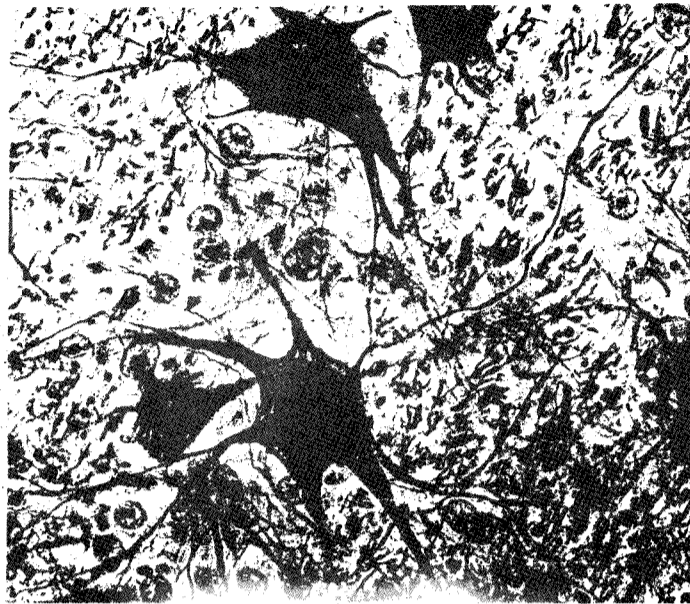
역학적 연구에서 허혈성 및 출혈성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공통위험인자는 고혈압이다. 확장기 혈압뿐만 아니라 수축기 혈압도 영향을 주다고 생각된다. 고혈압은 연령을 맞춘 대조군과 비교하여 볼 때 뇌졸중의 빈도를 4~8배 증가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경우 뇌졸중의 빈도를 여러배 감소시킨다. 고혈압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기전은 아직 온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고혈압이 주상동맥경화증, 혈관폐쇄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장기간의 고혈압성 혈관질환의 결과로 열공성 경색이 발생된다. 장기간의 고혈압으로 인하여 소동맥의 벽이 약해져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된다. 고혈압은 곤상동맥질환, 심근경색과 출혈성 심부전 같은 심장질환을 일으키는데 이들이 뇌색전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당뇨병, 일과성 허혈발작, 거의 모든 종류의 심장병과 부정맥이 동반되거나 동반되지 않는 심장판막질환은 잘 알려진 위험인자나 조절이 쉽지 않다. 자유자량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흡연과 음주가 있다. 식이요법이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음식물에 의한 고지질혈증은 곤상동맥이나 말초혈관의 주상동맥경화에 강력한 위험인자나 뇌동맥에는 비교적 영향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위험인자로는 증상이 없는 경동맥 좁음, 높은 헤마토크리트, 경구피임약 복용 등이 있다. 뇌졸중 치료의 일차적 목표가 예방이기 때문에 뇌졸중이 흔히 발생하는 연령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뇌졸중의 위험인자에 대하여 검사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항응고제제

심장에 원인이 있는 일과성 허혈발작 환자에서 항응고제제가 효과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확인할 적절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혈전성 뇌졸중의 예방이나 진행성 뇌졸중의 치료를 위해 항응고제제를 쓰는 것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추신경계

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내경동맥 내피제거술의 적응증이 되는 두개강외 경동맥협착이 흔하지 않다.

항혈소판제제

혈소판은 동맥의 혈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

thromboxane A₂의 형성을 억제하나 prostacyclin의 형성을 억제하지 않을 것이다.

아스피린은 일과성 허혈발작,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 환자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빈도를 약 30% 감소시키고 혈관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약 15% 감소시킨다. 영국의 연구에서는



李光浩

(순천향의대 신경과)

피린의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는데 아직 의문이 남는다.

북미에서 혈전색전성 주요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ticlopidine과 플라세보를 투여한 군을 비교하였을 때 ticlopidine 뇌졸중, 심근경색 및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도를 30% 감소시켰다. 일과성 허혈발작 또는 가벼운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ticlopidine 아스피린과 비교하여 뇌졸중 및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21% 감소시켰다.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ticlopidine이 아스피린보다 효과가 있어도 부작용의 위험도는 높았다. Ticlopidine을 복용하는 환자의 1%미만에서 가역적인 심한 호중구감소증이 나타나나, ticlopidine에 관련된 부작용은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 예방해야 아스피린 복용시 심근경색빈도 30% 감소

내경동맥 내피제거술

내경동맥 내피제거술에 대한 북미의 연구에서는 심한 경동맥협착(70~99%)이 있고 근간외 대뇌반구와 망막에 일과성 허혈발작이나 장애가 심하지 않은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에서 경동맥 내피제거술이 뇌졸중의 재발 및 사망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중증도의 내경동맥협착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그

혈소판제제는 일과성 허혈발작과 뇌졸중에서 이차적 예방을 목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cyclo-oxygenase를 억제하여 강력한 혈관수축제이고 혈소판 응집제인 thromboxane A₂의 형성을 억제한다. 한편 아스피린은 내피세포에서 cyclo-oxygenase를 억제하여 혈관확장제이고 혈소판 항응집제인 prostacyclin의 생성도 억제시킨다. 이론적으로 아주 소량의 아스피린을 쓸 때

하루에 300mg과 1200mg의 아스피린을 투여하였던 군에서 치료효과의 차이가 없었다. 네델란드의 연구에서는 하루에 300mg과 30mg의 아스피린을 투여한 군에서 치료효과가 차이 없었다. 그러나 전의 영국 연구에서 뇌졸중의 발생률이 매우 낮아 대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실험적으로 어떤 환자에서는 혈소판의 기능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다량의 아스피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스

비교적 양성이고 약을 끊은 후 호전될 수 있다.

아스피린이 건강한 성인에서 일차적으로 뇌혈관질환 예방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미국과 영국에서 연구되었다. 미국의 연구에서 심근경색의 빈도가 47% 감소하였고 두 연구에서 아스피린을 투여한 군에서 대조군보다 장애가 남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뇌졸중의 빈도가 높았다.

회원가입안내

시기 바랍니다. 지하고자 하는바,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있고, 지도계몽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과 복지사회구현에 이바지에 따라 본회는 成人病의 예방 및 치료 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중대문제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적 인력자원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적으로 활약 중인 3 / 40代에서 주로 발병하여 개인적 불행은 병 뇌혈관질환·간경변증·만성간장염·비만증(은 사회각계에서 불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成人病(암·당뇨병·고혈압·심장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산업화·도시화·식생활의 변화와

◆ 事業

- 1,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 2,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도계몽
- 3, 성인병에 관한 연구조사 및 기술의 평가
- 4, 성인병에 관한 의약품의 연구개발
- 5, 성인병진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운영
- 6, 성인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및 성인
-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 會員의 자격

- 1, 正會員: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는 성인병관계학자 및 전문가 또는 협회발전에 功이 있는 자
- 2, 特別會員: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협회사업에 자
- 3, 일반회원: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협회사업에 자

◆ 入會節次

- 1, 協會 사무처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
- 2, 入會비는 입회비 및 年會費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
- 3, 入會비는 협회사무처로 문의하시거나 8-2(충정로우체

대한국성인병예방협회

국 6층 603호) ● 전화 392-4722, 4744

사무처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8-2(충정로우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처로 문의하시거나 바랍니다.